

“포스코, 소형경전철 손배소 중단하라”

6년 간 동물실험에 1700여만 마리 사용

순천PRT 범대위 “잘못된 투자 책임 떠넘기는 대기업 횡포”

‘순천소형경전철(PRT)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포스코는 순천시에 대한 PRT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순천시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PRT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잘못된 투자 예측 책임을 순천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포스코가 순천시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고 논란 끝에 시작한 사업을 운영적자 누적을 이

유로 사업을 접겠다고 시에 통보하고 1367억원이라는 턱없는 금액을 산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며 “이는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조정도 말이 조정이지 사업 실패의 책임을 순천시민의 혈세로 보상받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책무를 위해 서울시에 5000억원, 포항시에는 2조2000억에 가까운 지역 후원을 하는 포스코가 순천시에 1367억원을 내놓으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즉각 소송을 중단하라”고 목소리

를 높였다. 그러면서 “순천시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엄중히 물을 것이고, 지금은 우선 포스코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범시민적 대응을 해야 할 때”라며 “포스코의 갑질에 반대하는 순천시민 서명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고 반대운동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PRT(Personal Rapid Transit)사업은 포스코와 순천시가 2011년 실시협약을 맺고 30년간 운영하기로 한 민간투자사업이다.

포스코는 610억원을 투자해 2014년 5월 순천만국가정원역~순천문학관역 4.62km구간 레일 위에서 삼각형 모양의 무인캐도차인 ‘스카이큐브’ 40여대의 상업 운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월8일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 이유를 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3월15일에는 협약해지에 따른 1367억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5월31일 중재심판 1차 심리와 8월26일 2차 심리에 이어 18일 PRT 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복제견 ‘메이’ 사건 이후 동물실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동물실험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3~2018년) 총 1657만 406마리의 동물이 각종 동물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실험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높았던 2018년에만 372만7163마리가 동물실험에 사용돼 2013년(196만6848마리) 대비 90%가량 증가했다.

기관별 평균 사용 동물수 역시 2018년 1만296마리로 2013년 6513마리 대비 58%가량 높아졌다.

2016년 이후 최근 3년 간 동물종별 사용현황을 보면 설치류가 860만58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슈 판결

‘14개월 영아학대’ 금천구 50대 돌보미, 1심 징역1년 실형

법원 “피해아동 보호·보육 책임에도 지속적 학대”

14개월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58·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3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만 1세의 영아로 학대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현도 할 수 없었던 반면, 그런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가 향후 발달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했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문제없이 아이돌보미로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맞벌이부부의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거나 딱박을 먹이고,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으며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질렀고, 많게는 하루에 10건까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영아를 학대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학대 사실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과 CCTV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뉴스1



가을 하늘 바라보며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남산타워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양시의원이 전남도 여성정책관 응모...사전 내정설 의혹

전남도가 공모한 여성가족정책관에 비례대표 출신의 현직 광양시의원이 지원해 사전 내정설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양시의원 이형선 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개방형 공모직인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에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서류전형은 통과한데 이어 지난 10일 면접시험까지 마쳤다.

전남도는 현재 후보자를 확정해

인사위원회에 올린 상태며,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도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아동·가정·다문화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을 맡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4급 지방서기관 대우를 받으며 연봉은 최하 5989만원에서 최고 8915만원에 달한다.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최종 합격하면 시의원을 그만둬야 하는 현직 지방의원이 전남도의 개방형 직위에 응모함으로써 사전에 낙점

해 공모 형식을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이 의원이 임기가 2년 9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원직을 버린다는 데 대해 비판도 일고 있다.

김진환 광양광역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응모는 시의원으로 당선 때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발언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1년 3개월간 시민과 해온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올해 로스쿨생 95.1% 법조윤리시험 합격

지난해 90%대를 기록한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올해도 무난하게 유지됐다.

법무부는 18일 제10회 법조윤리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2160명이 응시해 2053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합격률은 95.05%로 지난해 95.14%와 유사하다.

이는 지난해부터 적정 난이도 조정이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2017년 합격률은 2016년 98.21%에 비해 약 40%p 급락하면서 편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해에는 심층검토를 거쳐 중요 쟁점 위주로 출제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년간 법조윤리시험이 시행되면서 응시자들이 이를 참고해 시험에 대한 지식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점과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교육의 내실화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이다.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하며, 이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되지 않는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라치로, 자라치로, 영민 민력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